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도약 이끌 것”

2025년 여수시 현황·주요 역점사업

#현황

- 인구수 26만8120명
- 예 산 1조4823억원
- 직원수 2500여명

#역점사업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조성 및 전시 콘텐츠 개발
-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 추진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여수꿈바다어린이 도서관 건립
-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2025 새해설계

정기명 여수시장

민생 안정·여수산단 위기 극복 도시숲 조성 등 섬박람회 활용 장수·가막만 중심 해양레저관광 지속 가능 생태 환경 조성 박차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5년 새해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 도약 등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다.

정 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시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민생 대책반을 운영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상반기 내 지출이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 시장은 “오전일반산단과 여수국가산단 재생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노동자 복합문화센터와 청년문화센터 건립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착공한 모도 LNG 터미널 사업이 정부 주도의 지역 활성화 투자 기금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에 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정기명 여수시장.

완료한다. 행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당초보다 428억원 증액된 676억원의 사업비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도시숲을 주행사장 일대에 조성, 섬박람회 이후에도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고 박람회 유산이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와 섬 테마존 등을 설치한다. 부행사장인 개도섬에 문화센터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지역 경제에 장기적인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여수시를 K-관광의 거점,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도 이어 나간다.

정 시장은 “여수만 르네상스 세부실현을 위해 여자

만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장수만 중심으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막만을 복합해 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세부터 18세까지 연차적 출생수당 지급,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17호를 시작으로 추진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올해 25호를 제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시민 건강과 안정된 생활도 모색한다.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설립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고독사 예방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웅천과 돌산에 조성 중인 신개념 생각키움 체험놀이터를 상반기 내 완공하고, 관기 저수지에 생태공원을 신설, 남면 금오도에 신규 가로수길을 만드는 등 여수시 곳곳을 녹색 여가 공간으로 채워나갈 방침이다.

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입지가 확정된 자원회수시설은 2030년 설치를 목표로 준비해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막만 일원의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 신규 김 양식장 개발 등으로 신산업 육성과 농수산업 성장도 도모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 통과와 돌산 신복에서 우도로 이어지는 국도 17호선 도로 확장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지자체보다 304억원 증가한 76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내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 동력을 마련했다”며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기조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탄소중립포인트 1억3000여만원 지급

에너지 절약 7248세대 대상 2275여톤 온실가스 감축돼

여수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 2275여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포인트 1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최근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참여자 2만886세대 중 에너지 감축 실적에 따라 7248세대에 포인트를 지급했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수령 30년 나무를 22만5310그루 조경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포인트제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 가입한 712세대에 1만원

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www.cpoint.or.kr)을 통해 가입하거나 시청 기후생태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2023년부터 1포인트당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인센티브 확대, 우수 실적 읍면동 포상금 지급 등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한 운전자 258명에게 실적에 따라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2023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3회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됐다. 여수 남산공원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시, 새해 첫 독립운동가에 ‘김재명 선생’ 선정

삼산 거문 태생... 국내 항일 활동

여수시가 2025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삼산 거문 태생의 ‘김재명(金在明) 선생’을 선정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재명 선생은 1901년 11월에 태어나 1925년 이후 광주 청년회 임원과 1927년 조선청년총동맹 전남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같은 해 3월 제3차 조선공산당 전라남도 책임비서와 광주야체이가 담당자로 활동했다.

이후 1928년 2월 말 정비된 제4차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등으로 활동하면서 고려공산청년회 직속으로 학생위원회를 설치, 3·1운동 10주년 기념 시위를 준비했다.

이에 1928년 7월 검거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9년 10월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옥고 여독으로 1930년 1월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김재명 선생에 지난 2006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6년 연속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 달성

관광정책역량 등 모든 항목 최고

여수시가 ‘2023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3회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임을 입증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문체부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지자체의 관광 수준을 진단하고 3개 대분류 지표와 43개 세부지표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에는 17개 광역지자체와 15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됐으며 여수시는 1등급을 받은 6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분류 지표인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의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

여수시는 스마트 관광통합 앱 ‘여수엔’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운영과 다양한 국제회의 및 지역축제 개최 등으로 매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2035 관광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차별화된 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